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유럽의회, 15일 EU-MRV 수정안 투표

유럽 의회가 9월 14일 EU-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수정안에 대한 토의를 한 후 9월 15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보도됨. EU-MRV는 온실가스 배출과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선박의 배출 가스 규제 방안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 보고, 검증하는 제도라고 알려짐. 유럽의회에서 이 규정이 통과될 경우 해운업계도 EU의 Emissions Trading Systems에 의한 규제 범위에 들어가게되며, 유럽 항만에 기항하는 11,500척의 선박이 검사 대상이 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지주, 공모채 발행 착수

현대중공업지주가 공모 회사채 발행 작업에 착수하며 3년 연속 시장성 조달에 나선다고 보도됨.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가 10월 공모채를 발행하기로 했으며 모집금액은 1,000억원,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원으로 증액발행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만기구조는 2년물 200억원, 3년물 800억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더벨)

LNG 수요 향후 10년간 꾸준히 증가

LNG 수요는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가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도됨. 2020년 중 글로벌 가스 수요는 3% 줄어들 전망이나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Joe Biden's \$2trn pledge does not guarantee WTI Vs will be built in US

미국 해상 풍력관련 선박 발주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됨. AK Suda는 풍력터빈설치선(WTIV,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발주를 추진 중이며 11월에 예정된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됨. Joe Biden 후보자가 당선 공약으로 2조달러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Hyundai Heavy Industries has floating wind ambitions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이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함께 참여한다고 보도됨. 기존 동해1 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로 바꾸는 프로젝트이며 해당 가스전은 오는 2022년 생산을 종료한다고 알려짐. 2023년 착공해 2026년부터 전력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Upstream)

BHP 2030년까지 배기가스 40% 개선

글로벌 광산업체 BHP는 2030년까지 배기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제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2019년 BHP는 향후 5년 간 배기가스 감축에 4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음. 용선 선박을 잘 선택하고 대체연료를 사용하여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